AVI, 다우기술의 중앙일보 투자에 반대하는 공개 서한 발표

- **주주 자본의 중대한 훼손 우려 – 근거가 부족한 인수 가격, 투자 근거 부재, 주가 할인 폭 확대 가능성 지적**
- **투자 재평가와 함께 11월 30일까지 이사회의 공개 답변 촉구**

2026 년 11 월 16 일, 서울 – (주)다우기술 발행주식총수의 약 2.2%를 운용하는 영국계 가치투자 운용사 에셋 밸류 인베스터스(Asset Value Investors, 이하 "AVI")는 주주 자본에 중대한 훼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중앙일보 신주 인수에 반대하는 내용의 공개 서한을 발표했다.

다우기술, (주)사람인, CJ(주)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중앙일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다우기술 이사회는 중앙일보 신주 38,000,000 주를 1,900 억 원에 인수하기로 결의했다.

AVI 는 10 월 21 일 다우기술 이사회에 중앙일보 투자에 대한 우려를 담은 비공개 서한을 발송했으나, 10 월 30 일 수령한 회사의 답변이 제기한 우려의 핵심을 다루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AVI 는 모든 주주 및 시장 참여자들이 이번 투자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일보 이사회의 대응을 촉구하고자 공개 서한을 발표하였으며, 늦어도 오는 11 월 30 일까지 공개적으로 답변할 것을 요청했다.

AVI 는 다우기술의 중앙일보 신주 인수 반대 이유로 잠재 채무의 규모가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수 가격이 높고, 이번 투자를 추진할 전략적 근거가 없으며, 주가 할인 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제시했으며 같은 자금을 다우기술의 자사주 매입에 투입할 수 있는 투자 대안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컨소시엄은 다우기술의 인수 약정액 1,900 억 원을 포함해 총 5,200 억 원 규모의 조건부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했다. AVI 는 중앙일보의 저조한 수익성과 악화되는 재무 상태를 고려해 인수가격을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AVI 는 다우기술에 인수가격의 근거가 되는 가치평가 방법과 가정, 해당 인수가격이 전제하는 투자 후 지분가치, 투입자본의 기대수익률, 최소수익률 및 투자회수 기간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컨소시엄의 인수금액 5,200 억 원이 당초 언론에 보도된 경쟁 입찰가인 3,000 억~4,000 억 원을 크게 상회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AVI 는 다우기술이 이번 투자 결정을 뒷받침할 실질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신문 산업은 금융 IT·메시징·그룹웨어 등 다우기술의 기존 사업과 접점이 없으며 사업 다각화 자체만으로는 주주가치가 창출된다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신문 소유 규제에 따라 대기업집단의지분 보유가 50%로 제한되어 향후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부담하면서 CJ 와 경영권을 공유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룹 차원의 목적에 기여하는 것과 별개로 이번 투자가 다우기술 주주에게 어떠한 적정 수익을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AVI 는 중앙일보 인수가 다우기술의 지배 구조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어 주가 할인 폭도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10 월 30 일 기준, 다우기술의 주가는 AVI 추정으로 순자산가치(NAV) 대비 62% 할인된 수준에 거래되고 있다. AVI 는 이러한 할인이 다우기술이 보유한 자산의 질보다는 자본배분과 복잡한 중간지주회사 구조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를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향후 추가 자금 소요가 불확실한 적자 신문사의 공동 경영 부담까지 더해지면 이러한 우려는 심화되어 주가 할인율도 한층 더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AVI 는 다우기술 주가가 약 62% 할인된 수준에서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할 경우, 거래비용을 제외하고 매입에 투입하는 1,000 원당 추정 순자산가치(NAV) 약 2,630 원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우기술의 투자 약정액인 1,900 억 원은 다우기술 시가총액의 약 14%에 해당하며, 사람인의 투자금액까지 합할 경우 다우그룹의 총 투자 금액은 약 2,614 억 원에 이른다. AVI 는 지난 9 월 경영진이 데이터센터 가동 이후 자사주 매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점을 상기시키며, "현시점에서 자사주 매입에 투입할 수 없는 자금이라면, 워크아웃 중인 신문사에 투자하는 데에도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개 서한을 통해 AVI 는 다우기술 측에 투자 추진 근거 및 이사회의 독립적인 검토 결과를 명확히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가치평가 △재무 및 법무 검토 △독립이사의 검토 및 평가 등 3 가지 핵심 사항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독립이사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이해상충이 없는 외부 자문인의 지원을 받아 거래 목적의 정당성, 거래 조건의 공정성 및 의사결정 과정의 적정성을 기준으로 이번 투자를 독립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나아가 AVI 는 특별위원회가 거래 종결시까지 남은 거래 관련 모든 주요 의사결정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검토 결과와 권고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에셋 밸류 인베스터(**Asset Value Investors) 소개**

1985 년에 설립된 에셋 밸류 인베스터(Asset Value Investors)(“AVI”)는 철저한 리서치와 일관된 투자 원칙을 바탕으로 벤치마크에 구애받지 않는 집중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40 년 이상 글로벌 시장에서 투자 가치를 발굴해 왔다. 조 바우언프로인트(Joe Bauernfreund) 최고경영자(CEO) 겸 최고투자책임자(CIO)가 이끄는 AVI 는 글로벌 주식, 일본 주식 및 상장 폐쇄형 펀드에 걸쳐 20 억 파운드 이상의 운용자산(AUM)을 보유하고 있다. 글로벌 투자 전략에서 한국 주식은 그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져, 현재 포트폴리오의 약 20%를 차지한다. AVI 는 건설적인 주주 관여를하는 투자자로서 런던 증시에 상장된 다수의 투자 신탁과 개방형 펀드를 운용한다. AVI 는 2026 년 10 월, 퍼시픽 에셋 매니지먼트(Pacific Asset Management)가 AVI 의 발행주식 100%를 인수해 전략적 기관 파트너가 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2026 년 10 월 31 일 기준)

문의

AVI 홍보대행사 엑세스 커뮤니케이션

최지원 차장 (dir. 02-2036-9954 / cel. 010-3200-2061 / jchoi@accesspr.co.kr)

김륜현 과장 (dir. 02-2036-9975 / cel. 010-3931-0574 / rhkim@accesspr.co.kr)

은영준 대리 (dir. 02-2036-9940 / cel. 010-2630-7021 / yjeun@accesspr.co.kr)

이현지 사원 (dir. 02-2036-9969 / cel. 010-9927-5690 / hjlee@accesspr.co.kr)